



여성건강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질적 연구 보고 분석

이은주¹ · 송주은² · 김명희³ · 김 수⁴ · 전은미⁵ · 안숙희⁶ · 오현이⁷ · 천숙희⁸

제주대학교 간호대학¹, 아주대학교 간호대학², 세명대학교 간호학과³, 연세대학교 간호대학⁴, 동의대학교 간호학과⁵,
충남대학교 간호대학⁶, 조선대학교 간호학과⁷, 상지대학교 간호대학⁸

Analysis on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Lee, Eun-Joo¹ · Song, Ju-Eun² · Kim, Myounghee³ · Kim, Sue⁴ ·
Jun, Eun-Mi⁵ · Ahn, Sukhee⁶ · Oh, Hyun-Ei⁷ · Cheon, Suk-Hee⁸

¹College of Nursing,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²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Suwon

³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

⁴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Seoul

⁵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University, Pusan

⁶College of Nurs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⁷Department of Nursing, Chosun University, Gwangju

⁸Department of Nursing,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is research was aimed to analyze the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Methods:** Twenty qualitative researches using in-depth interviews or focus groups published in KJWHN during from 2002 to 2011 were selected for analysis. Selected reports were analyzed by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 (COREQ), which were a reporting guideline for qualitative researches, and consisted of thirty two items and three domains, i.e., (1) 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2) study design, and (3) data analysis and reporting. **Results:** Pers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credentials, gender and interviewer's bias or assumption were less reported than other items in the 1st domain. In the 2nd domain, descriptions such as a presence of non-participants, pilot test for interview guide development, and transcript return to participants were less reported than other items. In the 3rd domain, items related to number of data coder, participants checking of the finding, and clarity of minor themes were less reported than other items. **Conclus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COREQ is a useful guideline for reporting of qualitative studies. From these results, we suggest that full items of COREQ should be considered and described when researchers report qualitative research.

Key Words: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 Focus groups, Report, Guideline, COREQ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건강간호학회지(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는 1995년 모아간호학회에서 분리하여

창립한 여성건강간호학회의 공식 학회지로서, 여성, 건강, 간호와 관련한 연구 성과와 최신 동향 등을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Lee et al., 2011). KJWHN은 전문학술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시기에 발간하는 것은 물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유지하여 수준 높은 논문을 게재해 오고 있다. 또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주요어: 질적 연구, 심층면접, 포커스 그룹, 표준보고양식, COREQ

Corresponding author: Song, Ju-Eun

College of Nursing, Ajou University, 164 World-cup road, Yong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7018, Fax: +82-31-219-7020, E-mail: songje@ajou.ac.kr

투고일: 2012년 11월 20일 / 수정일: 2012년 12월 5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2월 6일

키기 위해 매 3년마다 KJWHN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분석하고 있다.

그간 게재된 논문에 대한 분석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자, 연구방법론, 연구영역 등을 분석하여 연구경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한편(Kim, Park, Park, Chung, & Ahn, 2007; Kim et al., 2010), 차이검정(Chung, Kim, Park, Ahn, Cho, & Park, 2007; Jun et al., 2011), 상관분석 혹은 회귀분석(Cho, Chung, Kim, Ahn, Park, & Park, 2008; Lee et al., 2011)을 활용한 논문의 보고 양식 등을 검토하였다. KJWHN에서 통계 방법에 중점을 두고 게재 논문을 분석한 이유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통계기법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결과를 정확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논문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하기 위함이었다(Chung et al., 2007; Cho et al., 2008; Jun et al., 2011; Lee et al., 2011).

양적 연구의 공식적인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위해 개발되어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한 예로 Equator network library (<http://www.equator-network.org/index.aspx?o=1032>)에는 다양한 연구설계 별로 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작위 실험연구를 위한 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무작위가 이뤄지지 않은 실험연구를 위한 TREND (Transparent Reporting of Evaluations with Non-randomized Designs), 관찰 연구를 위한 STROB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등과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설계와 방법론에 따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가이드라인들은 해당 연구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자들이 출판된 연구의 설계, 수행, 분석과 결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독자들이 비판적 평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며, 연구결과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Tong, Aainsbury, & Craig, 2007).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질적 연구와 부적절한 보고는 독자들의 이해를 방해하고, 실무에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미래 연구에서 질적 연구를 부적절하게 적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적 연구와 같이 질적 연구의 보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KJWHN에 게재된 질적 연구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며, 질적 연구와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출판된 질적 논문의 편수만이 보고된 상태이다(Kim et al., 2007; Kim et al., 2010). 이는 양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문의 편수가 적다는 것과 함께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COREQ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는 Tong 등(2007)이 질적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Equator network library에서 제시되어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중의 하나이다. Tong 등(2007)은 Medline이나 CINAH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와 질적 연구에 대한 체계적 리뷰, 주요 의학 잡지의 저자나 논평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출판물의 참고문헌 목록 등을 추적하여 질적 연구를 위한 22개의 체크리스트를 찾아내었고, 이들로부터 총 76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76개의 항목들 중에서 중복된 것, 모호한 것,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된 것, 질적 연구에 특이적이지 않은 것, 평가에 비실제적인 것들은 제거하고, 총 3개 영역, 즉, 연구팀과 반성(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연구설계(study design), 자료분석과 보고(analysis and finding)의 32개 항목으로 단순화시킨 질적 연구를 위한 표준보고양식을 개발하였다. COREQ는 심층면담과 포커스 그룹을 활용한 질적 연구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질적 연구의 명료하고 포괄적인 보고를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COREQ는 일부 학술지에 질적 연구논문을 게재할 때 저자들이 작성해야 할 체크리스트로 정해지거나(Rao & Tharyan, 2011), 사용이 권장되는 가이드라인(Larson & Cortazal., 2012)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또 이미 일부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이드라인(Franciosi, Hommel, & DeBrosse, 2011; Tamminga, de Boer, Verbeek, & Frings-Dresen, 2012)으로 활용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연구목적과 방법이 다르나,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Tong et al., 2007). 하지만 질적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비 지원기관, 임상실무자,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비주류 연구라거나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연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질적 연구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2002~2011년) 동안 KJWHN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을 COREQ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보고의 일관성과 연구방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KJWHN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0년간 KJWHN에 게재된 질적 연구 논문을 COREQ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3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질적 연구 논문의 보고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논문의 보고내용 중 ‘연구팀과 반성’ 영역을 분석한다.
- 대상 논문의 보고내용 중 ‘연구설계’ 영역을 분석한다.
- 대상 논문의 보고내용 중 ‘자료분석과 보고’ 영역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3월호부터 2011년 12월호까지 KJWHN에 게재된 논문 중 심층면담이나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질적 연구 20편의 보고 내용을 분석한 조사연구이다.

2. 분석틀

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은 Tong 등(2007)이 개발한 ‘연구팀과 반성’, ‘연구설계’, 그리고 ‘자료분석과 보고’의 3개 영역, 3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COREQ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각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이 달려있으며(예: 항목 1 면담자/축진자: “어떤 저자가 면담이나 포커스그룹을 진행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이 질문을 기준으로 각 항목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논문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도별 게재건수, 연구자의 수, 연구대상자와 연구 주제를 분석하였다. COREQ와 연관하여 각 항목에 대해 보고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정확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논의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추가분석한 항목은 연구자의 직업 종류, 경험과 훈련 기술에서의 내용, 연구를 위한 윤리적 조치 내용, 연구방법론에 따른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표본 서술 내용과 양식, 반복 인터뷰의 횟수, 코딩 참여자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 조정 내용, 참여자 진술 인용문의 제시 방법 등이다. 추가 분석된 항목은 COREQ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표에서는 제

시하지 않고 연구결과 서술로만 제시하였다.

3. 자료수집과 분석절차

연구자들 중에 2인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KJWHN에 실린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논문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잡지와 온라인(<http://www.women-health-nursing.or.kr/>)에서 각각 찾아 분석 대상 논문 20편을 확인하였다. COREQ를 이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 2인이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었으며, 그 결과를 연구자 모두가 참여하여 검토하고 분석기준을 정하였다. 각 연구자들은 확정된 분석기준에 따라 분담한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른 연구자가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여 분석의 일관성을 기하였다.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2002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간된 KJWHN의 논문 중 질적 연구는 모두 20편이었다. 질적 연구의 게재 편수는 한 해 평균 2편이었고, 연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2011년, 2009년, 2004년에 각각 4편이 게재되었고, 2008년 3편, 2003년 2편, 그리고 2005~2007년까지는 각각 1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질적 연구논문은 2002년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는 매년 1~4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각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 수는 1~8명까지 다양하였으며, 단독연구와 2인 연구가 각 9편, 3인과 8인인 경우가 각 1편이 있었다.

연구대상자는 여성인 경우가 18편, 남성 2편이었으며, 연구주제는 건강행위가 8편, 임신과 출산 8편, 질환자 삶의 과정 2편, 월경과 분만실 실습경험 관련 연구가 각 1편이 있었다.

2. 연구팀과 반성 영역

COREQ에서 영역 1의 ‘연구팀과 반성’은 ‘연구자의 특성’과 ‘참여자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다(Table 1). 연구자의 특성은 5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 밝히는 것은 연구자의 관찰과 해석에 대해 연구의 독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항목 1의 ‘면담자/축진자’는 “어떤 연구자 혹은 저자가 인터뷰나 포커스그룹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것이다. 1인 단독 연구로 게재된 연구논문을 포함하여 대상 논문 20편 중 13편

Table 1. Result of Analysis on Domain 1: Research Team and Reflexivity

(N=20)

Items of Guideline	Categories	n
Personal characteristics	1. Interviewer/facilitator	Stated
		13
	2. Credentials	Stated
		1
	3. Occupation [†]	Professor
		27
		Student
		5
		Nurse
		2
		Not described
		4
	4. Gender	Stated
		0
	5. Experience and training	Described
		10
Relationship with participants	6. Relationship established	Yes
		5
	7. Participant knowledge of the interviewer	Personal goal
		5
		For reason of doing research
		20
	8. Interviewer characteristics	Stated
		2

[†] Multiple response.

에서 누가 면담 혹은 포커스그룹에 참여하였는지가 서술되었다. 항목 2와 4는 각각 연구자의 ‘자격’(Ph.D., M.D., 등)과 ‘성별’을 묻는 것인데, 현재 KJWHN의 연구논문 기고체계에 서는 이를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진술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항목 3은 연구자의 ‘직업’을 묻는 것인데, 분석 대상 논문 20편의 연구자 총 38명 중 교수가 가장 많은 27명이었으며, 학생은 박사과정이나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연구자로 5명, 간호사는 2명이었다. 진술하지 않은 4명의 경우는 2003년도 발간 잡지의 게재자로 소속은 서술되나 직업을 밝히지 않은 기고규정에 따라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목 5는 “연구자가 어떤 경험과 훈련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술한 논문은 모두 10편이었으며,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론 교과목의 수강이나 강의, 관련 학회나 세미나 참석이나 발표, 질적 연구 수행경험, 혹은 관련분야의 간호사 경험을 서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논문들 중 복수 연구자가 게재한 경우 누구의 경험과 훈련인지를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은 경우(3편)가 있었고, 또 연구자 1인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1편)도 있었다.

COREQ에는 없으나 연구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 내용을 추가 분석하였다. 20편의 연구 모두에서 익명성 보장, 연구를 위해서만 자료 사용, 자의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등에 대한 통상적 고지와 함께 연구 동의를 받았는데, 이중 12편은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서술하였으며, 사생활과 기밀 보호에 대해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서명한 경우도 1편이 있었다. 녹음에 대해서도 따로 동의를 받은 경우가 8편이었으며, 이중 1편은 녹음에 대해서도 서면 동의를 받았음

을 보고했다. 또 현장노트 기록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고 한 경우가 1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1편이 있었다.

영역1의 ‘반성’에 속하는 하부영역 ‘참여자와의 관계’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 6은 “연구 시작 전에 연구자와 참여자간에 확립된 관계가 있는가?”를 묻는 것으로, 전체 20편 중 5편이 참여자 일부와 확립된 관계가 있었으며, 참여자가 연구자의 지인이거나, 교수이거나 혹은 교육 등을 통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보고되었다. 항목 7 “참여자가 연구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사적 목적’은 해당 연구 시작 전에 확립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서술한 5편이 이에 해당하였고, ‘연구 수행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는 참여자의 일부 혹은 전부가 기존에 확립된 관계는 없었으나, 연구수행의 목적 등을 설명하게 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연구 의도나 관심 등을 참여자가 알게 된 경우로, 전체 분석대상논문이 다 해당되었다. 항목 8 “면담자의 어떤 특성이 보고되었는가?”는 연구자의 편견, 가정, 연구주제와 관심 등을 서술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 항목의 경우 연구 필요성이나 목적 등의 진술이 아니라, 연구자가 연구현상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이해, 가정 등을 밝혔는지를 점검하였으며, 2편의 연구에서 해당 서술이 있었다.

3. 연구설계 영역

영역 2의 ‘이론적 틀’에 대한 항목 9는 연구자가 연구질문과 목적을 어떻게 탐구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 분

석 대상 논문 중 12편은 현상학적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Collazzi와 Giorgi에 따라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것이 각각 5편, van Manen을 따른 것이 2편이었다. van Manen을 따른 연구 중에 1편은 현상학적 방법론과 함께 여성주의 철학에 입각하였음을 서술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을 따른 것은 6편이며, 이중 4편은 Strauss와 Corbin을 2편은 Schreiber와 Stern을 따랐다. 내용분석은 1편이었으며, 또 다른 1편은 단지 질적 연구라고 표현하였다(Table 2).

영역 2의 ‘참여자 선정’은 7문항인데, 이 문항들은 참여자가 연구와 관련한 특유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문제에 관련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연구의 독자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항목 10은 “어떻게 표본을 선출하였는가?”에 대한 것으로 7편의 연구는 2가지 이상의 표본 선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17편의 연구가 대상자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목적 표출’이었으며, ‘눈덩이 표출’은 5편이었다. 눈덩이 표출인 경우 목적 표출된 참여자의 소개로

Table 2. Result of Analysis on Domain 2: Study Design

(N=20)

Items of guideline	Categories	n
Theoretical framework	9. Methodological orientation and theory [†]	
	Grounded theory	6
	Phenomenology	12
	Content analysis	1
	Unidentified	1
	Others	1
Participant selection	10. Sampling [†]	
	Purposive	17
	Convenience	3
	Snowball	5
	11. Method of approach [†]	
	Face-to-face	20
	Others	2
	12. Sample size	
	< 5	1
	5~10	10
	11~15	5
	> 16	4
Setting	13. Non-participation	
	Yes	4
	14. Setting of data collection [†]	
	Home	9
	Clinic	2
	Others	18
	Not stated	2
	15. Presence of non-participants	
	Stated	0
	16. Description of sample [†]	
	Demographic data	16
	Other characteristics	15
	Not stated	4
Data collection	17. Interview guide	
	Interview question	19
	Pilot test	3
	18. Repeat interviews	
	Yes	16
	19. Audio/visual recording	
	Audio	20
	20. Field notes	
	Yes	12
	21. Interview duration (mean)	
	< 60 min	3
	60~120 min	14
	> 120 min	2
	Not stated	1
	22. Data saturation	
	Stated	15
	23. Transcripts returned	
	Yes	2

[†] Multiple response.

선정된 경우가 해당되었다. ‘편의 표출’을 사용한 논문은 3편이었다. 항목 11은 “어떻게 참여자에게 접근하였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연구가 참여자를 직접 만나서 ‘면 대 면’으로 접촉하였으며, 기타에 속하는 2편은 일부 참여자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접근한 것이었다. 항목 12의 ‘표본 크기’를 점검한 결과, 3명에서 40명까지 다양하였으며, 참여자가 5~10명인 경우가 10편, 11~15명이 5편, 16명 이상이 4편, 그리고 5명 미만인 1편이었다. 20편 중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만을 한 연구가 15편, 포커스그룹을 사용한 경우가 4편, 둘 다 사용한 경우가 1편이었다. 또 포커스 그룹은 2~13군까지 활용되었으며, 각 그룹의 인원은 최소 3명에서 최고 9명이었다. 항목 13은 “얼마나 많은 참여자가 참여를 거부하거나 탈락했는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탈락자가 있다고 한 경우는 4편이었고, 탈락한 이유가 모두 서술되어 있었다.

하부 영역 ‘연구 환경’에서는 모두 3항목에서 점검하는데, 이 항목들은 왜 참여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했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 항목 14는 ‘자료수집 상황’을 서술했는지를 확인한다. 분석대상 연구들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참여자마다 다른 상황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다. 하지만 자료수집 상황이 전혀 서술되지 않은 경우가 1편, 일부 참여자에 대해 서술되지 않은 경우, 즉, 포커스그룹의 면담 상황은 기술되었으나, 심층면담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은 경우가 1편이 있었다. 자료수집 장소는 참여자의 가정인 경우가 9편, 병원이 2편, 그리고 기타 참여자가 이용하는 시설(단전호흡 수련원 상담실, 산후조리원 등)이나 편안하게 여기는 장소(카페, 레스토랑 등) 등으로 서술한 경우가 18편이 있었다. 항목 15는 자료수집 상황에 “연구자나 참여자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가?”에 대한 서술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대상 논문 중에 연구자나 참여자 외의 존재에 대해 서술한 경우는 1편도 없었다. 개방된 장소(다인용 병실, 경로당, 카페, 식당 등)의 경우 ‘다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배제할 수 없었다면 그들의 존재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한 논문이 없었다. 항목 16 ‘표본에 대한 서술’은 “표본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구통계학적인 자료와 같은 참여자의 특성을 보고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연구결과와 해석의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20편의 논문 중에 참여자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경우가 4편이 있었으며, 인구통계학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가 16편, 기타 연구현상과 관련한 참여자의 다른 특성(임신주수, 남편과의 연령차이, 질병유형 등)을 보고한 경우가 15편이 있었다. 인구학적 자료인 경우도 매

우 다양하여, 연령만 서술한 경우도 있었으나, 학력, 결혼상태, 종교, 경제상태, 직업, 자녀수 등의 특성을 보고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은 대부분 기술하는 것이었으나, 4편은 표도 함께 제시하였고, 1편은 표만 제시하였다.

영역 2의 4번째 하부영역인 ‘자료수집’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항목들은 독자들이 연구자의 초점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참여자들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었는가를 평가하게 해준다. 항목 17인 ‘인터뷰 지침’은 “저자에 의해 제공된 질문, 촉진 질문, 지침이 있는가? 인터뷰를 위해 예비조사(pilot test)를 하였는가?”를 점검한다. 20편의 논문 중에서 인터뷰를 위한 어떤 질문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1편이 있었으며, 19편은 1~16개의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이중 일부에서는 주요 질문과 함께 질문 요약을 제시하였다. 또 인터뷰를 위해 예비조사를 한 경우는 3편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질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연구자의 역할과 진행을 확인하거나, 주제에 민감해지고 구체적인 질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라고 서술하였다. 항목 18은 ‘반복 면담의 유무와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반복면담이 있었던 경우는 16편에서 보고되었고, 이중 12편은 반복면담의 횟수가 정확하게 서술되었으나, 4편은 단지 ‘추가면담’ 혹은 ‘추가로 자료수집’하였다고만 서술되었다. 항목 19는 “자료수집을 위해 녹음 혹은 녹화하였는가?”를 묻는 것인데, 20편 모두 녹음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항 20 ‘현장 노트’ (“인터뷰 혹은 포커스 그룹 중이나 후에 현장노트를 만들었는가?”)에 대해 사용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경우는 12편이었으며, 4편은 “~를 관찰하였다” 등의 진술은 있으나 현장노트 존재에 대해 분명히 기술하지 않았다. 또 많은 연구자들이 ‘메모’와 ‘현장노트’를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항목 21 ‘면담 기간’은 “인터뷰나 포커스 그룹의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진술이 전혀 없는 경우가 1편 있었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 60~120분이 14편, 60분 미만이 3편, 120분보다 긴 경우가 2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4편)의 경우는 면담 시간이 1회에 해당하는 것인지, 반복 면담을 포함한 총 면담기간인지가 불확실하게 서술되었다. 항목 22는 ‘자료 포화’ (“자료 포화가 논의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료포화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16편이었으며, ‘포화’를 설명하는 표현은 매우 다양하여,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8편), “더 이상 새로운 자료/주제/의미/범주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4편), “의미가 포화될 때까지” (1편), “더 이상 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1편), 그리고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시점을 자료의 포화상태

로 보고”(1편)라고 진술되었다. 항목 23의 ‘전사물의 참여자 점검’(“전사물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을 위해 참여자에게 보였는가?”)을 한 경우는 2편이었으며, 2편 모두 “면담기록과 경험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하였다.

4. 연구분석과 결과 영역

COREQ의 영역 3에서 ‘자료분석’은 연구의 신빙성과 타당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5항목으로 구성된다(Table 3). 항목 24 ‘자료 코딩참여자 수’(“몇 명이 자료 코딩을 하였는가?”)를 언급한 논문은 11편이며, 이중 9편은 단독연구자에 의한 것이고, 2편만이 복수 연구자의 논문이었다. 또 코딩에 참여한 연구자 간의 불일치 처리과정을 추가 분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서술한 경우는 단독논문에서 복수의 코딩참여자 있었음을 기술한 연구 1편과 코딩 참여자는 불확실했으나 코딩 불일치에 대해 협의 혹은 합의하였다고 한 논문이 4편이었다. “저자가 코딩 체계를 서술하였는가?”를 묻는 항목 25의 경우 분석대상 논문 20편이 모두 진술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모두 각 방법론의 자료분석방법에 따라서 이를 서술하였다. 항목 26의 ‘주제 도출’은 “주제가 자료에서 도출되었는지, 미리 정해진 틀에 따랐는지?”를 묻는 것으로, 20편의 논문 모두에서 이론적 틀이나 관련 선행연구에 따라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료에서 주제를 도출하였다. 항목 27은 자료 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 사용했는가? 했다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는가?”를 확인한다. 분석대상논문 중에 어떤 것도 분석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항목 28은 “참여자들에게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는가?”를 점검한다. 분석결과에 대해 참여자에게 “확인” 혹은

“점검”을 받았음을 보고한 논문은 11편이었으며, 이중 4편은 참여자 중 일부에게만 점검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아닌 참여자를 잘 아는 제 3자 점검하도록 한 경우도 1편이 있었다.

COREQ의 마지막 하부 영역인 ‘보고’는 4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 29는 “주제나 결과를 지지하는 인용문이 제공되었는가? 각 인용문의 진술자가 확인되는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이 항목은 결과와 해석에 대한 투명성과 진실성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편 연구논문 모두에서 참여자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1편에서는 각 인용문들이 어느 주제에 대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또 2편의 경우는 너무 짧은 인용문만을 제공하였다. 또 진술 인용문의 참여자가 확인되는 것은 10편이었으며, 참여자의 신원표기 방식을 추가 분석하였을 때, “참여자 1” 등과 같이 표기한 논문(6편), “1, 2...” 등과 같이 숫자로 표기한 논문(2편), “#1”과 같이 숫자를 표기함에 있어서 #을 함께 제시한 논문(1편), 그리고 “여성 1” 등과 같이 표기한 논문(1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 표시를 하고 있었다. ‘자료와 결과의 일관성’(“제시된 자료와 결과가 일치하는가?”)을 점검하는 항목 30의 경우 18편이 자료와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31은 ‘주요 주제(major theme)의 명료성’을 확인한다(“결과에서 주요 주제가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 20편 연구 중 17편의 연구에서는 자료로부터 주제, 주제묶음 혹은 범주를 구성한 과정이 명료하게 표현되고, 각각에 대한 명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나머지 3편의 경우 주요주제의 명칭이 제시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그 주제 명칭으로는 자료를 포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 항목 32는 ‘부수적인 주제(minor theme)의 명료성’을 점검하는데 이 항목에 딸린 질문은 “다양한 사례나 부수적 주제에 대한 서술이 있는가?”이다. 대상 논문 모두에서 다양한

Table 3. Result of Analysis on Domain 3: Analysis and Findings

(N=20)

Items of guideline		Categories	n
Data analysis	24. Number of data coders	Described	11
	25. Description of the coding tree	Described	20
	26. Derivation of themes	Derived from the data	20
	27. Software use	Not used	20
	28. Participant checking	Checked	11
Reporting	29. Quotations presented	Presented	20
	30. Data and findings consistent	Consistent	18
	31. Clarity of major themes	Clear	17
	32. Clarity of minor themes	Clear	0

사례(모순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례 등)를 제시하거나 주요 주제와 다른 부수적 주제를 도출한 것은 없었다.

논 의

최근 10년 간 KJWHN에 게재된 심층면담과 포커스그룹을 이용한 질적 연구는 총 20편으로, 매해 평균 1~4편 정도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었다. 질적 연구의 대상은 여성이 18편으로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연구주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여성의 경험과 적응(8편),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의 건강행위 수행 경험(8편) 등이었다. KJWHN가 여성건강과 관련된 원저 및 중설을 우선적으로 출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여성건강간호학회지 출판규정, 2012. 3), 그간 출간된 질적 연구의 대상과 주제가 본 학술지 출판규정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의 성 특성을 포함하여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여성의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제공하는 질적 연구가 KJWHN에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COREQ의 세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연구팀과 반성’ 영역은 ‘연구자의 특성’과 ‘참여자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Tong 등(2007)이 ‘연구자의 특성’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는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과정 자체나 참여자와의 관계에 밀접히 관련되고, 개인의 편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Tong 등(2007)은 연구자의 신분이나 자격, 성별, 질적 연구를 위한 훈련과 교육 경험 등을 밝히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이런 조치가 연구자의 의견과 해석에 대해 독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에서 직업은 저자에 대한 소속과 직위를 표시하는 논문 첫 페이지에 제시되었으나, 질적 연구자의 자격과 성별을 따로 보고한 논문은 없었으며, 이는 KJWHN의 투고규정에 따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질적 연구논문 작성 시에는 연구자의 신분, 성별, 자격 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KJWHN의 게재형식을 고려하면, 관련 내용은 연구자의 경험과 훈련에서 서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20편의 연구 중 단독연구인 9편을 제외한 11편의 논문 중 7편에서 복수의 연구자 중에서 누가 면담을 진행하였는지를 보고하지 않았다. 또 연구자의 질적 연구 관련 경험과 훈련에 대해 기술한 경우도 10편뿐이었고, 이 10편 중에는 일부 연구자에 대해서만 관련 서술이 있었다. 공동연구의 경우

자료수집과정에 참여한 연구자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연구자가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과 훈련을 하였는지를 서술한다면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여자와의 관계’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관계의 상호작용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해 연구자가 ‘반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Tong 등(2007)은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사전 관계 유무나 상호작용 정도가 참여자의 반응과 연구자의 연구 현상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환자의 치료에 직접 관계하고 있는 경우라면, 향후 지속적으로 그 연구자에게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환자들에게 솔직하고 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편향되거나 오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관계’에 대한 보고를 검점한 결과,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가 있었던 논문은 20편 중 5편이었고, 연구자-참여자는 교수-학생, 교육자-피교육자 또는 지인 관계였으며, 또한, 이 5편 중 일부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를 연구자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참여자의 관계는 Tong 등(2007)이 우려하는 것처럼 면담의 솔직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편의 연구 모두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을 알리고 질적 연구에서의 참여자의 통상적 권리와 연구자의 의무를 고지하였다. 연구참여 동의를 형식은 구두 혹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에서는 녹음과 현장노트에 대해 따로 동의를 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 윤리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한 논문은 1편뿐이었는데, 지난 10년간의 간호학에서의 연구 윤리 관련 정책이 2012년의 상황과 다른 때문으로 보이며,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면담자의 특성’ 보고, 즉, 연구자의 연구현상이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편견이나 선 이해 등에 대해 보고한 논문은 2편뿐이었고, 모두 van Manen의 연구방법을 따른 경우였다. 이런 결과는 van Manen의 연구방법에서 다른 현상학적 방법보다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이해 등을 연구 전이나 분석과정에서 점검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질적 연구방법론 모두에서 연구자의 선입견 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는 않지만, 근거이론 방법이나 현상학적 방법론 등(Shin, Cho, & Yang, 2004)을 활용할 때는 연구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연구과정은 물론 연구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리라 본다.

COREQ의 두 번째 영역인 ‘연구설계’는 ‘이론적 틀’, ‘참여자 선정’, ‘연구 환경’과 ‘자료수집 상황’의 4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점검하도록 한다. 먼저 분석 대상 논문에서 ‘이론적 틀’로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현상학적 방법론으로 모두 12편이었고, 근거이론 방법은 6편에서 사용되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방법론을 단지 ‘질적 연구’라고 한 것도 1편이 있었다. 질적 연구란 단지 질적 자료를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론적 틀이나 철학적 지향에 따라 같은 질적 자료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연구의 이론적 틀을 밝히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 질문과 목적을 어떻게 탐색하고 무엇을 탐색하는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분명하게 서술되어야 한다(Tong et al., 2007). 한편 지난 10년간 KJWHN에 기고된 질적 연구의 이론적 틀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질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현상 이해를 도모하고 더 풍요로운 지식 개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른 결과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건강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 선정’과 관련된 보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표집방법’은 목적표출이었다. 20편 중 17편의 논문에서 현상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준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서술하고도 표본추출 방법을 편의표출로 표현한 논문도 있었고, 또 표집방법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표본추출방법이 무엇인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편의표출이 적절한 경우도 있을 것이나, 목적표출이 질적 연구에서 관련 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수집하는 적절한 표집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Cote & Turgeon, 1995; Tong et al., 2007), 향후 질적 연구 보고에서 표본추출방법의 선택과 표본에 대한 서술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석대상 논문의 ‘참여자 수’를 분석한 결과 5~10명이 10편, 11~15명이 5편 등으로 최소 3명에서 최고 40명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표본수를 절대적인 숫자에 의존하기보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는 상태, 즉,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표집한다(Kim et al., 2005). 따라서 표본 수에 대한 분석 결과는 COREQ의 항목 22 ‘자료 포

화’에 대한 서술과 연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 20편의 연구 중에 15편의 연구만이 자료 포화에 대해 서술한 점을 보면 일부 연구에서는 표본수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편의 연구에서 연구자의 ‘참여자 접근 방법’은 대부분 면 대 면 접근법이었으며, 주로 관련 기관이나 지인의 소개 등으로 만나게 된 경우였고, 일부는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접근을 하여,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참여자에게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음에도 도중에 면담을 중단하거나 탈락한 ‘비참여자’는 4편의 연구에서 서술되었으며,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되었다.

‘연구 환경’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서, Tong 등(2007)은 참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이유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는 환경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환경에 대한 기술에는 자료가 수집되는 장소 뿐 아니라 장소 주변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병원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여건에 놓인 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 자식이 있을 때 어머니와 면담하는 경우처럼 주변에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역시 진솔한 자기표현을 방해할 수 있다. 20편의 연구 대부분에서 참여자의 집 또는 참여자가 현재 이용하거나 편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면담장소로 선정했다고 서술하고 있어, 연구자들이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면담장소가 개방된 곳이거나 독립된 공간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상황(예, 병실의 경우 다인용 병실, 카페나 식당 등)에서 면담 시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면담에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라면 면담상황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참여자와 연구자 외에 다른 존재로 인한 참여자 반응의 제한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한편 20편 중 4편의 논문에서는 표본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었다.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포함하는 서술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서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관련성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특정 그룹과 특성을 비교 혹은 탐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Tong et al., 2007). 이에 향후 질적 연구보고에서는 자료수집 환경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표본에 대한 특성 등에 대한 명확한 기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연구 환경’의 하부영역인 ‘자료수집’은 질적 연구의 신뢰

성과 타당성 확보는 물론 반복연구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점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인터뷰 지침’ 항목은 참여자에 대한 ‘면담질문’ 제시와 ‘예비조사’ 여부로 분석하였다. 19편의 논문에서 면담질문이 제시되었으며, 각 논문의 질문 수는 1~16개로 다양하였다. 하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상세하게 면담질문이 제시된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소수의 면담질문만 제시된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 제시는 독자로 하여금 연구의 초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방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격려되었는지를 사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한 상세하게 보고되어야 한다(Tong et al., 2007). 또한, 예비조사에 대해서는 분석대상논문 중 3편만이 면담질문을 개발하거나 연구현상에 민감해지기 위해 실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양적 연구에서는 예비조사가 정규적 절차로 인식되는 것에 반해 질적 연구에서는 소홀한 경향이 있으나, 예비조사 과정 동안 면담질문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할 수 있고, 면담을 더 능숙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hin et al., 2004). ‘반복 면담’은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질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얻는데 기여한다(Tong et al., 2007). 20편의 연구 중에 반복면담을 한 경우가 16편이었으나 이 중 4편은 반복면담의 횟수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보고의 불충실은 ‘면담기간’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면담소요시간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1회 면담소요시간인지 반복면담을 포함한 총 소요시간인지 불분명하게 서술되었다. 반복면담이나 면담시간은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관계(rapport)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Tong et al., 2007), 향후 연구에서는 반복면담의 실시 여부와 횟수, 그리고 면담 소요시간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논문 20편 모두에서 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기술하였으나, 이중 필사된 자료를 ‘참여자 확인’하였다고 기술한 논문은 2편뿐이었다. 또한, ‘현장노트’의 경우도 메모 혹은 현장노트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12편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장에서 관찰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현장노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관찰내용을 기록하거나 활용하였다는 보고가 없는 논문도 3편이 있었고, 아예 현장노트의 사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5편이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 녹음과 녹음된 내용의 필사기록은 연구자의 노트보다 참여자의 관점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Fossey, Harvey, & McDermott, 2002). 전사물(transcription)을 참여자가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며, 면담과정 중의 맥락적인 세부 사항이나, 비언어적 표현 등을 적어 둔 현장노트를 활용

하는 것은 자료의 정확성(accuracy)을 높일 수 있다(Fossey et al., 2002). 이에 질적 연구보고에서 자료수집 상황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하다.

COREQ의 세 번째 영역인 ‘연구분석과 결과’는 ‘자료분석’과 ‘보고’라는 2가지 하부영역을 점검하는 것이다. ‘자료분석’과 관련하여 ‘코딩 참여자’에 대한 서술을 보면, 20편의 연구 중에 단독 연구가 9편이었으며, 공동연구인 11편 중 단지 2편에서만 코딩에 참여한 연구자 수를 밝혔다. 특히, 단독연구 중에서 1편만이 연구자 외의 다른 전문가가 코딩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Tong 등(2007)은 다수의 연구자가 코딩에 참여하는 것이 현상에 대한 더 넓고 더 복잡한 이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단독연구인 경우 이런 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나,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현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다수의 코딩 참여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연구인 경우도 이를 위해 코딩참여자를 명확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 다수의 코딩 참여자가 있을 때 이견을 어떻게 조정하였는지에 대한 기술도 있어야 할 것이다. Tong 등(2007)은 자료의 신빙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의 진술문 중에서 중요한 어구를 선정해 내는 코딩과정 뿐 아니라 자료로부터 주제가 도출되고 정의되는 과정 등이 면밀하게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분석대상논문 20편의 경우 ‘코딩체계’ 항목에서는 모두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의 타당성(validity)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의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관점과 의미를 잘 반영하는지와 연구자의 지식에 의해 왜곡 또는 축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Byrne, 2001; Tong et al., 2007). 본 연구의 분석대상논문 20편 중 10편에서 분석 결과에 대해 ‘참여자 확인’을 받았다. 하지만 1편에서는 참여자와 잘 아는 제 3자로부터 분석결과가 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를 점검받았고, 또 분석대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9편의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분석결과의 참여자 점검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편 모두에서 수집된 자료로부터 ‘주제 도출’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분석대상논문이 각 연구방법론의 기본적 전제를 잘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하부영역에서는 ‘인용문 제시’, ‘자료와 결과의 일관성’, ‘주요 주제의 명료성, 그리고’부수적 주제의 명료성’을 평가한다. 대상논문분석 결과 20편 전수에서 주제와 관련된 인용문이 제시되었으며, 이 중 10편의 논문에서

각각의 참여자 번호 등을 제시하여 어떤 참여자의 진술문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인용문이 어떤 주제에 관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고, 또 참여자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어 향후 연구 작성 시에는 이에 관해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Tong 등(2007)은 각 참여자에서 나온 진술문을 인용하여 제시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제시된 자료와 주요 주제와 부수적인 주제 등을 포함하는 연구결과 간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구체적인 참여자 진술문 자료와 주제사이의 일관성, 주요 주제의 명료성 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부수적 주제의 경우 명료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분석대상논문 모두에서 주요 주제에 대해 모순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례를 제시하거나 기타 사례를 서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료의 충분함, 즉, 자료의 포화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hin 등(2004)은 충분한 자료란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모든 부정적 사례들도 조사될 때까지 수집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부수적 사례에 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자료포화를 논의한 모든 연구들이 새로운 자료 혹은 새로운 의미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지점을 자료의 포화상태로 판단함으로써, 부정적 사례나 모순적 사례까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는 향후 더 상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OREQ의 ‘자료분석’과 ‘보고’에 관련한 항목의 경우, 각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특이적인 자료분석과 결과 보고의 측면까지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결과 보고의 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COREQ의 세 번째 영역인 ‘연구분석과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각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특이적이고 구체적인 표준 보고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결론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KJWHN에 게재된 연구 중 개인 또는 포커스집단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20편의 질적 연구 논문을 질적 연구 보고 가이드라인인 COREQ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 보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COREQ의 3개 영역인 ‘연구팀과 반성’, ‘연구설계’, ‘연구분석과 결과’ 측면에서 분석해 본 결과, ‘연구팀과

반성’ 영역 중 여러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항목은 연구자의 직업과 질적 연구를 위한 연구자의 경험과 훈련과정의 기술 등이었으며, 가장 부족하게 보고되고 있는 항목은 연구자의 자격, 성별, 그리고 연구자의 가정이나 선이해의 기술 등에 대한 부분이었다. 또 ‘연구설계’ 영역은 대체로 적절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연구 환경에 참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존재했는지의 여부, 인터뷰 지침을 위한 예비조사의 수행과 녹음한 전사물의 대상자 확인 등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분석과 결과’ 영역 역시 대체로 적절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연구결과와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코딩 참여자의 수와 그들 간의 불일치 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서술이나, 연구결과와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작업 등에 대한 서술이 다른 항목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모든 연구에서 부수적 주제에 대한 서술이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연구 논문 작성 시에는 본 연구결과에서 부족한 보고의 내용으로 분석된 항목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COREQ는 특정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연구보고의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심층면담이나 포커스집단 면담을 활용한 질적 연구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보고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되, 특히, ‘연구 분석결과와 보고’ 영역에서 차별화된 보고 항목을 개발할 수 있다면 질적 연구 보고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REFERENCES

- Byrne, M. M. (2001). Evaluating the finding of qualitative research.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Journal*, 73(3), 703-706.
- Cho, D. S., Chung, C. W., Kim, J. I., Ahn, S. H., Park, S. M., & Park, H. S. (2008). Analysis on report of statistical testing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4, 213-221.
- Chung, J. W., Kim, J. I., Park, H. S., Ahn, S. H., Cho, D. S., & Park, S. M. (2007). Analysis on report of statistical testings for mean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 211-218.
- Cote, L., & Turgeon, J. (2005). Appraising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in medicine and medical education. *Medical Teacher*, 27, 71-5.
- Fossey, E., Harvey, C., McDermott, F., & Davidson, L. (2002). Understanding and evalua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6, 717-732.
- Franciosi, J. P., Hommel, K. A., DeBrosse, C. W., Greenberg, A. R., Greenler, A. J., Abonia, J. P., et al. (2011). Development of a validated patient-reported symptom metric for pediatric eosinophilic esophagitis: qualitative methods. *BMC Gastroenterology*, 11, 126-138. <http://dx.doi.org/10.1186/1471-230x-11-126>
- Jun, E. M., Lee, E. H., Kim, J. I., Kang, H. S., Oh, H. E., Lee, E. J., et al. (2011). Analysis on report of statistical testings for mean difference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388-394.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4.388>
- Kim, G. B., Sin, K. L., Kim, S. S., Yoo, E. K., Kim, N. C., Park, E. S., et al. (2005).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Hyunmoonsa.
- Kim, J. I., Lee, E. H., Kang, H. S., Oh, H. E., Lee, E. J., Jun, E. M., et al. (2010).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keywords and research metho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2007-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6, 307-316. <http://dx.doi.org/10.4069/kjwhn.2010.16.3.307>
- Kim, J. I., Park, S. M., Park, H. S., Chung, C. W., & Ahn, S. H. (2007).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by their keywords in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2003-2006).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3, 51-59.
- Larson, E. L., & Cortazal, M. (2012). Publication guidelines need widespread adoption.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5, 239-246. <http://dx.doi.org/10.1/jclinepi.2011.07.008>
- Lee, E. J., Lee, E. H., Kim, J. I., Kang, H. S., Oh, H. E., Jun, E. M., et al. (2011). Analysis of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studies from th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over the past three years(2007-200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187-194.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2.187>
- Rao, T. S., & Tharyan, P. (2011). Editori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transparency and validity of published research. *Indian Journal of Psychiatry*, 53, 183-186. <http://dx.doi.org/10.4104/0019-5545.86793>
- Shin, K. L., Cho, M. O., &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Tamminga, S. J., de Boer, A. G., Verbeek, J. H., & Frings-Dresen, M. H. (2012). Breast cancer survivors' views of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turn-to-work process - a qualitative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Work Environment & Health*, 38, 144-154. <http://dx.doi.org/10.5271/sjweh.3199>
- Tong, A., Aainsbury, P., & Craig, J. (2007).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research(COREQ): A 32-item checklist for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national Journal for Quality in Health Care*, 1, 349-357. <http://dx.doi.org/10.1093/intqhc/mzm042>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Various works for analyses of quant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KJWHN) were reported by an editorial board of Korean Society of Women Health Nursing.

■ What this paper adds?

Analysis on the reports of qualitative researches published in KJWHN was firstly conducted using a useful guideline of consolidated criteria for reporting qualitative studies (COREQ) and reported strong or weak descriptions regarding to items included in the COREQ.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e quality of report for qualitative research may be improved by consideration of the full items included in the COREQ. Specific report guidelines for qualitative methodology such as phenomenology or grounded theory need to be developed for reporting of each qualitative method.